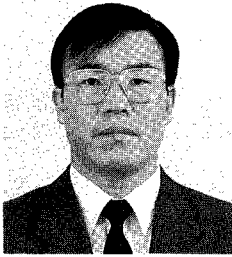


새로움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역사의 필연...



김 선 중
• 한국가금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월간양계처럼 내실을 추구하며 긴 세월을 한결같이 추구해온 잡지도 흔치 않다고 본다. 오늘도 알찬 내용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나온 여정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꾸미는데 고심하며 수고를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도 찬사를 드리고 싶다.

칭찬이나 좋은 말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지속성이 있는 칭찬이어야 참된 의미가 있는 칭찬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다가오는 세기는 지식, 정보 사회라고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월간양계는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부터 큰 공헌을 하여왔지만 앞으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인이나 조직을 가릴 것 없이 새로움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며 두 해 전 IMF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실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굳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는 기왕 존재할 바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대한양계협회 Home Page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느니 update를 않는다느니 등등 비판의 글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의견이 자연스럽게 개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그렇게 흐뭇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꼈다. 물론 모든 자료가 정확하여야되고 가능한 자주 update하여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다는데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다. 협회 운영 5대 목표가 제시된 것도 보았다.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양계 업계의 목표를 잘 정리한 것으로 공감한다. 목표 설정에 잘못이 없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론, 정보 매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좀더 치밀하게 기획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이 과제라고 본다. 협회나 회원들이 하여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지식과 정보를 기획하고 가공하는 정보매체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때 효율적일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월간양계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양계**